

Ⅲ. 박녕쿨타령

1. 박녕쿨打令

박녕쿨이 에헤이요 번을적만 같아선
 온세상을 얼사쿠나 다뒤덮는것같더니
 하드니만 에헤이요 에헤이요 에헤야
 草家집 三間을 못덮었네, 에헤이요 못덮었네.

복송아꽃이 에헤이요 피일적만 같아선
 봄동산을 얼사쿠나 도맡아놀것 같더니
 하드니만 에헤이요 에헤이요 에헤야
 나비한마리도 못붙잡데, 에헤이요 못붙잡데.

박녕쿨이 에헤이요 번을적만 같아선
 가을을줄을 얼사쿠나 아는이가적드니
 얼사쿠나 에헤이요 하로밤서리에, 에헤요
 닢도줄기도 노구라붙고 둥근박만 달렸네.

『女性』 42호(1939. 6), pp. 16~17.

박녕쿨이 에헤이요 버들적만 갓하선는
 온세상을 얼사쿠나 다뒤덮는것 갓드니

하드니만 에헤이요 에헤이요 에헤야
 草家三間을 못다더폄데, 에헤이요 못더폄네.

복숭아꽃치 에헤이요 꺾일적만 갓하선는
 花園이 열사쿠나 몽쌍노흘것 갓드니만
 하드니만 에헤이요 에헤이요 에헤야
 범나뵤 한마리 붓잡앗데 에헤이요 못붓잡앗데.

박넝쿨이 에헤이요 버들적만 갓하선는
 가을 올줄을 에헤이요 아는이가 적드니만
 열사쿠나 에헤요 하룻밤 서리에 에헤요
 녁도 즐기도 노구라붓고^① 둥근박만 달녇네.

—1934. 9. 5夜—

『女性』(1939. 6), p.99. 金億, 「素月の生涯」 원고컷.

① 노구라붓고—오그라져 시들고.

『女性』 40호, (1939. 7), pp.16~17.